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6년 4월 9일 국가직 9급

2016. 04. 09.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 외래어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flash - 플래시
- ② shrimp - 쉬림프
- ③ presentation - 프레젠테이션
- ④ Newton - 뉴턴

**정답** ② 외래어 표기법

①, ② [[j]]는 영어의 경우 자음 앞에서는 '슈', 어말에서는 '시'로 적는다. 그러나 다른 언어에서 온 말은 언제나 '슈'로 적는다. 모음 앞의 [[j]]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샤', '셔', '셰', '쇼', '슈', '시'로 적는다.

- 예
- 플래쉬 → 플래시(Flash) : ㉠손전등(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전등).
  - ㉡사람들의 주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주목', '주시'로 순화.
  - 쉬림프(x) → 슈림프(shrimp) : 새우
  - 대쉬 → 대시(dash) : ㉠ 줄표(이음표의 하나). ㉡구기 경기 또는 권투에서, 상대 진영이나 상대 선수를 향해 저돌적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일.
  - 브러쉬 → 브러시 (brush) : 솔(먼지나 때를 쓸어 떨어뜨리거나 풀칠 따위를 하는 데 쓰는 도구).
  - 러쉬아워 → 러시아워(rush hour) : 출퇴근이나 통학 따위로 교통이 몹시 혼잡한 시간. '몰릴 때', '붐빌 때', '혼잡 시간'으로 순화.
  - 쇼맨십 → 쇼맨십(showmanship) ㉠특이한 언행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들을 즐겁게 하는 기질이나 재능. ㉡알파하게 남을 현혹하여 그때그때의 효과만을 노리는 수완. '제 자랑', '허세'로 순화.
  - 리더쉽 → 리더십(leadership) :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 '지도력'으로 순화.
  - 아인슈타인 → 아인슈타인(Einstein, Albert) : (독일어) 독일 태생의 물리학자.
  - 잉글리쉬 → 잉글리시(English)
  - 쇼핑(shopping)
  - 슈퍼마켓(supermarket)
  - ③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광고 대리업자가 예상 광고주를 대상으로 광고 계획서 따위를 제출하는 활동. 국제음성기호 표기상 [e]는 '세'로 표기하게 된다. 따라서 'presentation[pre-]'과 같은 발음을 기준으로 하여 '프레젠테이션'으로 적는다. 프레젠테이션(X), 프리젠테이션(X).
  - ④ 영어의 '-ton'의 표기는 '-턴'으로 통일하였다.
- 이에 따라 '뉴턴(Newton)', '워싱턴(Washington)', '애슈턴(Ashton)', '힐턴(Hilton)'으로 적는다.

2. 밑줄 친 보조사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렇게 천천히 가다가는 지각하겠다.  
-는: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냄
- ② 웃지만 말고 다른 말을 좀 해 보아라.  
-만: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냄
- ③ 단추는 단추대로 모아 두어야 한다.  
-대로: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냄
- ④ 비가 오는데 바람조차 부는구나.  
-조차: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을 나타냄

**정답** ① 보조사의 의미

①의 '-는'은 연결 어미 뒤에 붙어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서 쓰인 것이다.

① -는: 연결 어미 뒤에 붙어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놀러 가더라도 멀리는 가지 마라.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는 는 해야지.

[참고] -는: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인 경우

예 비가 많이는 오지 않았다.  
그 과자를 먹어는 보았다.  
사과는 먹어도 배는 먹지 마라.  
산에는 눈 내리고 들에는 비 내린다.

② -만: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아내는 웃기만 할 뿐 아무 말이 없다.  
하루 종일 잠만 잤더니 머리가 멍했다.

③ -대로: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예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상관 말고 살자.

④ -조차: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극단의 경우까지 양보하여 포함함을 나타낸다.

예 그는 편지는커녕 제 이름조차 못 쓴다.  
한자는 쓰기도 어려운 데다 읽기조차 힘들다.  
너조차 가지 않겠다는 거냐?  
그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아무도 모른다.

3. 다음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만중의 '사씨남정기'에서 사씨는 교씨의 모함을 받아 집에서 쫓겨난다. 사악한 교씨는 문객인 동청과 작당하여 남편인 유한림마저 모함한다. 그러나 결국은 교씨의 사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유한림이 유배지에서 돌아오자 교씨는 처형되고 사씨는 누명을 벗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 ① 교언영색(巧言令色)
- ② 절치부심(切齒腐心)
-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 ④ 사필귀정(事必歸正)

**정답** ④

김만중의 '사씨남정기'는 처첩 갈등형 가정 소설의 대표작으로 간악한 교씨와 고매한 사씨의 대립을 통해 '사필귀정(事必歸正)',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인현 왕후 폐위의 부당성을 풍간(諷諫)하기 위해 지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집안을 망치는 교씨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 축첩 제도의 불합리성도 드러내었다.

- ① 교언영색(巧言令色) : 巧 공교할 교/令 말씀 언/令 하여금 영/色 빛 색)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묘히 꾸며서 하는 말과 아첨(阿諛)하는 얼굴빛. [동] 아유구용(阿諛苟容), [상] 강의목눌(剛毅木訥), 성심성의(誠心誠意)
- ② 절치부심(切齒腐心) : 切 끊을 절/齒 이 치/腐 썩을 부/心 마음 심) '이를 갈고 마음을 썩이다'는 뜻으로, 대단히 분하게 여기고 마음을 썩임.
-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 晩 늦을 만/時 때 시/之 갈 지/歎 탄식할 탄) '때 늦은 한탄'이라는 뜻으로,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서 탄식함을 이르는 말. [유] 망양보뢰(亡羊補牢),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사후청심환(死後淸心丸), 실마치구(失馬治廐), 십일지국(十日之菊), 후시지탄(後時之嘆)
- ④ 사필귀정(事必歸正) : 事 일 사/必 반드시 필/歸 돌아갈 귀/正 바를 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6년 4월 9일 국가직 9급

2016. 04. 09.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7. ㉠~㉣을 시의 흐름에 맞게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빛소리  
빈방에 혼자 앞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윷목.  
- 기형도, '엄마 걱정' -

- ① ㉠: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간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 있다.
- ② ㉡: 관심 받지 못해 외로운 상황이 나타나 있다.
- ③ ㉢: 공부하기 싫은 어린이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 ④ ㉣: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이 나타나 있다.

**정답** ③ 현대시 - 문맥의 이해

어두워진 방에 혼자 '찬밥'처럼 남겨진 화자는 잠시나마 외로움을 떨쳐내고 엄마를 기다리며 숙제를 해 보지만, 아무리 숙제를 천천히 해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① ㉠: 해가 저물어 어둡해진 상태, 시간적 배경으로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② ㉡: '찬밥'의 이미지는 가난 때문에 누구도 돌보지 않는(방치된) 어린 시절 시적 화자의 서글픈 모습을 상징한다. '찬밥처럼'이란 표현 역시 기형도 특유의 독특한 비유다.
- ③ ㉢: 무서움과 무료함을 잊기 위한 행위,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의 한 방식으로 시간이 빨리 흘러가지 않는다는 심리를 내포
- ④ ㉣: '금간 창 틈'은 가난한 가정 형편을 타나내고, '빛소리'는 화자의 외로움을 고조시키는 소리다.

※기형도, '엄마 걱정'

1. 핵심정리

- 1) 어조 : 엄마를 걱정하고 기다리는 애뜻한 어조, 추억을 떠올리는 그리운 어조
- 2) 구성 :

1연	어머니의 고된 삶과, 혼자 남아 어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화자의 불안한 마음
2연	어린 시절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

- 3) 주제 : 장에 간 엄마를 걱정하고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 시장에 간 엄마를 애뜻하게 기다리는 마음.
- 4) 표현 : 감각적 심상을 통해 외롭고 두려웠던 어린 시절의 가난 체험을 드러냄.
- ① 감각적 심상을 통해 외롭고 두려웠던 어린 시절의 가난 체험을 드러냄.
- ② 상황의 제시를 통해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였다.
- ③ 유사한 문장의 반복과 변조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의미를 심화하였다. 예) '안 오시네', '엄마 안 오시네', '안 들리네'
- ④ 각 시행은 비종결 어미로 끝을 맺음으로써 내용상 마지막 행의 '내

유년기의 윷목'을 수식하고 있다. 이러한 문장 구조는 시상을 '내 유년기의 윷목'으로 집중시키며, 유년기의 고통을 현재까지 연장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⑤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엄마'의 고된 삶과 '나'의 정서를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예) '해는 시든지 오래', '찬밥처럼 방에 담겨',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2. 이해와 감상

이 시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을 주제로 하여 시적 화자의 어린 시절 가운데 엄마를 기다리던 '그 어느 하루'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1연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화자의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어두워진 방에 혼자 '찬밥'처럼 남겨진 화자는 잠시나마 외로움을 떨쳐내고자 엄마를 기다리며 숙제를 해 보지만, 아무리 숙제를 천천히 해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고, 창 틈으로 들려오는 빛소리가 오히려 화자의 외로움을 더욱 고조시킨다. 더불어 1연에서는 고된 어머니의 삶도 묘사되어 있는데, 열무를 팔러 간 어머니도 그 열무들이 시들 만큼 해가 저문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삶에 지쳐 '배춧잎 같은 발소리'를 내며 돌아온다. 뒤이어 그 시절의 기억이 성인이 된 화자에게 아직까지도 생생하며 지금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2연을 구성하고 있다.

8. 밑줄 친 단어가 상징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달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천상병, '귀천(歸天)' -

- ①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 ② 반짝이는 나뭇잎은 어린 아이들의 웃음같다.
- ③ 잠을 깨고 나니 고된 인생도 한바탕 꿈처럼 여겨졌다.
- ④ 얽매인 삶보다는 구름 같은 삶이 훨씬 좋을 때가 있다.

**정답** 현대시 - 시어의 상징적 의미

'이슬'과 '노을빛'은 영롱한 아름다움을 지닌 것이지만 모두 잠깐 동안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소멸해 버리는 유한한 것이다.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는 인간의 삶이 새벽 햇살이 비치면 사라지는 '이슬'처럼 덧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함축적으로 나타낸다. ③의 '꿈'은 삶의 덧없음을 의미하므로 '이슬'의 의미와 유사하다.

① 정한모의 '어머니'

'눈물'은 고통과 인내를 담은 사랑, '진주'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고귀한 가치로, 어머니는 사랑의 힘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②의 '나뭇잎'은 생명력을 의미한다.

③ 잠을 깨고 나니 고된 인생도 한바탕 꿈처럼 여겨졌다.

④ '구름'은 '얽매인 삶'가 대비되어 '자유로운 삶'을 의미한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6년 4월 9일 국가직 9급

2016. 04. 09.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천상병, '귀천(歸天)'

1. 핵심정리

- 1) 시대 : 1970년대
- 2) 어조 : 내면의 자세를 차분하게 드러내는 내면적이고 독백적 어조
- 3) 주제 : 삶과 죽음에 대한 긍정적 관조, 삶에 대한 달관

2. 삶에 대한 화자의 태도

지상에서의 삶을 '아름다운 소풍'에 비유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시적 화자는 삶을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화자의 삶 자체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달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3. '이슬'과 '노을빛'의 상징적 의미

'이슬'과 '노을빛'은 영롱한 아름다움을 지닌 것이지만 모두 잠깐 동안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소멸해 버리는 유한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시인이 '이슬과 더불어', '노을빛 함께' 하늘로 돌아가겠노라고 말한 것은 삶의 덧없음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것처럼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인의 태도가 무욕(無慾)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말해 준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수상 년간 늘 같은 곳 사방을 맴돌던 그대  
하루는 관절 낡은 차를 카 오디오 힘으로 몰아  
그 어디보다 사방이 한데 모여 있는  
정선 마을에 방을 잡았습니다.  
한창 졸다 정신 버쩍 들어 예 어디지, 둘러보니  
어둑어둑 바다에 바닷물 가득하듯  
마음에 사방만 가득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지요.  
물구나무 선 앞같이 나무들의 치마 벗겨지고  
바람이 울긋불긋 입성 조각들을 이리저리 몰고 다닐 때  
늦가을 해 막 지고  
땅이 빛 다 써버리기 직전  
산 능선 위로 빙 둘러 그어 놓는 빛,  
사그라지기 직전 큰 빛 고리 같고 결불 쪼이는 솔 가장자리 같은,  
숨죽이고 그대를 두르고 있는 아 사방의 굴레.  
그럼 바로 저 바깥에는!  
헤아리는 순간  
빛 고리 하늘 높이 솟았다가 꽃히듯 내려와  
그대 머리 휘감으며 뇌 바싹 조이는,  
외마디 소리 지르며  
머리 껍질째 화환(火環) 벗는 꿈을,  
그대는 두 눈 크게 뜨고 서서 꾸었습니다.

- 황동규, '사방의 굴레'

(나)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달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천상병, '귀천'

[기출] 위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지적 정서가 보이고 있다.
- ② 두 시의 공통된 주제는 '하늘'이다.
- ③ 인생에 대해 관조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④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가정이 표현되어 있다.
- ⑤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정답 ③ [서울시 9급]

두 시 모두 현실적 삶에서 초탈하는 가치를 말하고 있다. 낯선 시가 나오면 마지막 구절에 집중하도록 하자. 천상병의 시야 워낙 알려진 관조적 시이고, 황동규 시에서는 '머리 껍질째 화환(火環) 벗는 꿈'이란 구절에 주목하면 답이 나온다. '관조'란 차분하게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한다.

[예제] 다음 <보기>를 고려하여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천상병 시인은 한평생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였다.

- ① 불행한 삶을 살았던 시인의 모습을 중심 제재로 삼고 있다.
- ② 불행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맑은 시를 쓸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하다.
- ③ 죽음을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표현한 것을 보면 시인은 죽음까지도 초월하려 것이다.
- ④ 가난과 병고로 인한 삶의 고통도 결국 '노을빛'처럼 순간적인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시인이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며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정답 ①

이 시는 삶을 '소풍'으로, '죽음'을 하늘에 다시 돌아가는 것(귀천)으로 인식했던 화자의 인식이 중심 제재라 할 수 있다. 불행한 삶을 살았던 시인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작품은 아니다.

9. 두 한자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광정(匡正) - 확정(廓正)
- ② 부상(扶桑) - 함지(咸池)
- ③ 중상(中傷) - 비방(誹謗)
- ④ 갈등(葛藤) - 알력(軋轢)

정답 ② 한자 어휘의 의미관계

②의 '부상(扶桑)'은 해가 뜨는 동쪽 바다를 의미하고, '함지(咸池)'는 해가 진다고 하는 서쪽의 큰 못을 의미하므로 반의 관계이다. ①, ③, ④의 어휘들은 유의 관계 어휘들이다.

①

• 광정(匡正): 匡 바를 광/正 바를 정) 잘못된 것이나 부정(不正) 따위를 바로잡아 고침.

• 확정(廓正): 廓 클 확/正 바를 정) 잘못을 바로잡음.

②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6년 4월 9일 국가직 9급

2016. 04. 09.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부상(扶桑):** 扶 도울 부/桑 뽕나무 상) ㉠해가 뜨는 동쪽 바다. ㉡중국 전설에서, 해가 뜨는 동쪽 바닷속에 있다고 하는 상상의 나무. 또는 그 나무가 있다는 곳.

• **함지(咸池):** 咸 다 함/池 못 지) 해가 진다고 하는 서쪽의 큰 못.

③

• **중상(中傷):** 中 가운데 중/傷 다칠 상)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킴.

• **비방(誹謗):** 誹 헐뜯을 비/謗 헐뜯을 방)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

④

• **갈등(葛藤):** 葛 취 갈/藤 등나무 등) 취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

• **알력(軋轢):** 軋 삐걱거릴 알/轢 칠 력) 수레바퀴가 삐걱거린다는 뜻으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사이가 안 좋거나 충돌하는 것을 이르는 말.

10. 다음 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행자:** 오늘은 우리의 전통 선박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한 책인 우리나라 배에 대해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나라 전통 선박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설명한 책 내용이 참 흥미롭던데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해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판옥선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판옥선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진행자:** 자세히는 모르지만 임진왜란 때 사용된 선박이라고 들었습니다.

**김 교수:** 네, 판옥선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전투함인데,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적합한 평저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진행자:** 아, 그렇군요. 교수님, 평저 구조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네, 그건 밑 부분이 넓고 평평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그 때문에 판옥선은 수심이 얇은 바다에서는 물론, 썰물 때에도 운항이 가능했죠. 또한 방향 전환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결국 섬이 많고 수심이 얇으면서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적합한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

**김 교수:**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선조들의 지혜가 참 대단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판옥선이 전투 상황에서는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궁금한데,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① 진행자는 김 교수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② 김 교수는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 ③ 김 교수는 진행자의 부탁에 따라 소개할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진행자는 김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을 하고 있다.

**정답** ② 대담의 내용 파악

김 교수는 진행자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전통 선박에 담긴 선조들의 지

혜가 담긴 구체적인 사례로 판옥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즉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한 것은 아니다.

① 진행자는 마지막 질문에서 김 교수에게 ‘판옥선이 전투 상황에서는 얼마나 위력적’이었는데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③ 김 교수는 진행자의 부탁에 따라 우리나라 전통 선박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구체적인 사례로 ‘판옥선’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④ 진행자는 판옥선의 평저 구조에 대한 김 교수의 설명을 듣고 “결국 섬이 많고 수심이 얇으면서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적합한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라고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을 하고 있다.

11.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그는 우리 시대의 스승이시기 보다는 자상한 아버지이다.
- ② 그는 황소 같이 일을 했다.
- ③ 하루 종일 밥은 커녕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 ④ 내 모자는 그것하고 다르다.

**정답** ④ 띄어쓰기

④ ‘-하고’는 체언 뒤에 붙어 구어체로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① 스승이시기 보다는 → 스승이시기보다는

‘-보다는’ 체언 뒤에 붙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어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참고] ‘어떤 수준에 비하여 한층 더’의 의미를 지닌 ‘보다’의 경우에는 부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예) 소외된 이웃에게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② 황소 같이 → 황소같이

‘-같이’는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참고] ] ‘같이’가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의 의미인 경우에는 부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예)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다.

세월이 물과 **같이** 흐른다.

③ 밥은 커녕 → 밥은커녕

‘-은커녕’은 앞말을 지정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이다. 보조사 ‘은’에 보조사 ‘커녕’이 결합한 말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2. 밑줄 친 어휘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미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 해미: 바다 위에 낀 짙은 안개
- ② 이제는 안갯음할 때가 되었다.  
- 안갯음: 남에게 해를 받은 만큼 저도 그에게 해를 다시 줌
- ③ 그 울타리는 오랫동안 살피지 않아 영 불쌍이 아니었다.  
- 불쌍: 남에게 보이는 체면이나 태도
- ④ 상고대가 있는 풍경을 만났다.  
- 상고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정답** ② 우리말 어휘의 뜻

까마귀는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고 한다. 이러한 까마귀의 행동이 '안갠음'이다. 비슷한 뜻을 가진 말로 반포지효(反哺之孝)가 있다. '안'은 마음을 뜻한다. '안갠음'에는 마음을 다해 키워준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 있다. 자식이 커서 부모를 잘 받들어 모시는 일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을 뜻하는 어휘는 '양갠음'이다.

13. 밑줄 친 어휘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그는 얼금얼금한 얼굴에 콧망울을 벌름거리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 ② 그 사람 눈초리가 아래로 축 처진 것이 순하게 생겼어.
- ③ 무슨 일인지 컷밥이 혹 달아오르면서 목덜미가 저린다.
- ④ 등산을 하고 났더니 장딴지가 땅긴다.

**정답** ① 표준어

- ① 코끝 양쪽으로 둥글게 방울처럼 내민 부분은 '콧망울'이 아닌 '콧방울'이다. '콧망울'과 '콧날개' 등은 바르지 않은 표현이다.
- ② '눈초리'는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눈에 나타나는 표정을 뜻하며, '눈꼬리(귀 쪽으로 가늘게 좁혀진 눈의 가장자리)'와 함께 표준어이다. '눈귀'와 '눈꽂지'는 바르지 않다.
- ③ 컷밥은 컷불과 같은 의미로, 컷바퀴의 아래쪽에 붙어 있는 살을 의미한다. '컷방울'과 '컷불'은 바르지 않다.
- ④ 장딴지는 종아리의 살이 볼록한 부분을 의미한다.

14.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맑고 아른아른한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얼굴이 못생겨서 추한 사람은 오히려 맑은 거울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기 때문에, 만일 맑은 거울 속에 비친 추한 얼굴을 보기 싫어할 것인즉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깨쳐 버릴 바에야 먼지에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먼지로 흐리게 된 것은 걸뿐이지 거울의 맑은 바탕은 속에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뒤에 닦고 갈아도 닳지 않습니다.

아!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함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흐린 것을 취하는 것인데, 그대는 이를 어찌 이상스럽게 생각합니까?” 하니 나그네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규보, '경설' 중에서-

- ① 잘생긴 사람이 적고 못생긴 사람이 많다는 말에서 거사의 현실 인식을 알 수 있다.

- ② 용모에 대한 거사의 논의는 도덕성, 지혜, 안목 등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후 거울을 닦겠다는 말에서 거사가 지닌 처세관을 엿볼 수 있다.
- ④ 이상주의적이고 결백한 자세로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거사의 높은 의지가 드러나 있다.

**정답** 고전수필- 내용 파악

이 작품은 거울에 먼지가 끼어도 사물을 맑게 비추는 거울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부정적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사람의 맑은 본성이 흐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주의적 처세관을 보여 준다. 따라서 ④의 내용은 바르지 않다. '경설'은 '흐린 거울'을 취한 거사의 대답을 통해 현실적인 처세와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일깨우는 교훈적 수필이다.

※이규보, '경설'

1. 주제 : 올바른 처세의 자세와 현실에 대한 풍자

나그네의 질문	맑은 거울이 아니라 흐린 거울을 보는 이유
거사의 답변	인간의 보편적 심리와 그에 따른 거울의 선택

2. 이해와 감상

'경설'은 '흐린 거울'을 취한 거사의 태도와 이에 대한 손의 물음, 그리고 거사의 대답을 통해 현실적인 처세와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일깨우는 교훈적 수필이다. 이 작품은 거울에 먼지가 끼어도 사물을 맑게 비추는 거울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부정적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사람의 맑은 본성이 흐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주의적 처세관을 보여 준다.

글쓴이는 이처럼 '거울'이라는 사물을 통해, 지나치게 청렴결백한 태도로만 일관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 의식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 상황에 따른 올바른 처세관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즉, 결백하고 청명한 태도로 일관해서는 현실에 부딪혀 깨지기 쉬우니, 못한 사람도 감싸고 남의 허물도 수용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 '경설'의 두 가지 교훈

첫 번째 교훈	지나치게 청렴결백하게 처세할 경우, 결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깨뜨려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청렴결백을 드러낼 상황이 아니라면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처세술이다.
두 번째 교훈	세상에는 모자란 점이 많은 사람들이 잘나기만 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사람들의 잘잘못을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너그럽게 넘어갈 줄도 알아야 한다.

3. 주요 소재의 의미

- 거울 : 작중 화자(거사)가 반려로 삼고자 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화자가 나아가고자 하는 세계, 또는 화자를 알아 인정해 주는 어떤 대상일 수도 있다. 또한 거울의 의미에서 너무 맑고 결백해서 상대방의 흠이나 결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 관계에 대한 비판 의식도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체 이야기의 맥락과 상관없이 거울은 인간의 본성과 영혼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누구나 사람의 본성은 맑고 깨끗하지만, 세상의 먼지와 티끌이 끼어 그 본성이 흐려진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 나그네 : 세속적, 인습적 고정관념을 가진 인물

- 잘생긴 사람은 적고 ~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 거사가 흐린 거울을 택한다는 의미는, 세상에는 결점을 가진 사람이 더 많으므로 지나친 결벽과 청명만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 결점을 이해해 주는 태도를 취한다는 뜻.

- 아! 옛날에 ~ 어찌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 인간의 결점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과 열린 마음을 상징하는 진술.



15. ㉠~㉣을 고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이 똑같이 많이 벌고 잘살기를 바랄 수는 없다. 어느 정도의 소득 격차는 경쟁을 유발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양극화 현상의 심화 추세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자연 치유되도록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동안 단편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했으나 ㉡떡 먹은 입 쓸어 치듯 개선은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가고 있음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저소득층 소득 향상을 통한 근본적인 빈부 격차 개선책을 제시하여 빈자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렇다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옥하거나 ㉢경원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기업 투자와 내수 경기를 일으키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서민 소득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고소득층의 해외 소비 활동도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세제 개혁을 통한 재분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제만큼 유효한 재분배 정책 수단도 없다.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부문의 양극화 개선을 위해 경제 체질과 구조 개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 ① ㉠ - 문맥에 맞도록 '그러나'로 수정한다.
- ② ㉡ - 의미가 통하도록 '아랫돌 빼서 윗돌 괴듯'으로 수정한다.
- ③ ㉢ - 어법에 맞도록 '경원을 사서는'으로 수정한다.
- ④ ㉣ - 문단의 통일성에 어긋나므로 삭제한다.

**정답** ③ 어법-고쳐쓰기

'경원(敬遠)'는 공경하되 가까이하지는 않다. 겉으로는 공경하는 체하면서 실제로는 꺼리어 멀리하라는 의미이다. 또한 '경원시(敬遠視)'도 겉으로는 가까운 체하면서 실제로는 멀리하고 꺼림칙하게 여김을 뜻한다. 따라서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옥하거나 경원해서는/경원시해서는 안 된다.'로 고쳐야 한다.

- ① ㉠ 앞 뒤 문맥을 고려하면 인과관계(따라서)가 아닌 역접의 관계이므로 '그러나'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 ② ㉡ '떡 먹은 입 쓸어 치듯'은 떡을 먹고도 안 먹은 듯 입을 쓸어 내며 시치미를 뚝 떤다는 속담이다. 문맥을 보면 단편적인 대책으로 개선은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것이므로 일이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추어 일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듯하다'는 속담이 적절하다.
- ④ 이 글은 양극화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세제 개혁을 통한 재분배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은 논지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16. 안긴문장이 주성분으로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그 학교는 교정이 넓다.
- ②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다.
- ③ 아이들이 놀다 간 자리는 항상 어지럽다.
- ④ 대화가 어디로 될지 아무도 몰랐다.

**정답** 안긴문장의 성분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등이다. 안긴문장을 찾아서 전체 문장에서 어느 성분으로 쓰인 것인지 파악한다.

- ① '교정이(주어) 넓다(서술어)'는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인 서술절이다.
- ② '비가 오기'는 명사절로서 목적어로 쓰였다.
- ③ '~놀다 간'은 관형절로서 관형어로서의 성분이므로 주성분이 아닌 부속 성분으로 쓰인 것이다.
- ④ '될지'의 '-ㄴ지'는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다. 뒤에 목적격조사 '-를'이 생략된 상태로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다. '-느냐, -는가, -는지' 등의 종결어미로 끝난 훈문장이 그대로 명사절이 되어 안기기도 한다.

17. ㉠~㉣의 밑줄 친 어휘의 한자가 옳지 않은 것은?

- 그는 적의 ㉠사주를 받아 내부 기밀을 염담했다.
- 남의 일에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 그 선박은 ㉢결함을 지닌 채로 출항을 강행하였다.
- 비리 ㉣척결이 그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 ① ㉠ - 使嗾
- ② ㉡ - 間涉
- ③ ㉢ - 缺陷
- ④ ㉣ - 剔抉

**정답** ② 한자 어휘

㉡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함은 '간섭(干涉)'이다.

- ① ㉠사주(使嗾: 使 하여금 사/嗾 부추길 주) 남을 부추겨 좋지 않은 일을 시킴.
- ② ㉡ 間涉 → 간섭(干涉: 干 방해 간/涉 건널 섭)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함.
- ③ ㉢ 결함(缺陷: 缺 이지러질 결/陷 빠질 함)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  
• 間 사이 간
- ④ ㉣ 척결(剔抉: 剔 빼 바를 척/抉 도려낼 결) ㉠살을 도려내고 뼈를 발라냄. ㉡나쁜 부분이나 요소들을 깨끗이 없애 버림.

18. 다음 글이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이유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개의 몸에 기생하는 진드기가 있다. 미친 듯이 제 몸을 긁어대는 개를 붙잡아서 털 속을 헤쳐 보라. 진드기는 머리를 개의 연한 살에 박고 피를 빨아 먹고 산다. 머리와 가슴이 붙어 있는데 어디까지가 배인지 꼬리인지도 분명치 않다. 수컷의 몸길이는 2.5밀리미터, 암컷은 7.5밀리미터쯤으로 핀셋으로 살살 집어내지 않으면 몸이 끊어져 버린다.  
한번 박은 진드기의 머리는 돌아 나올 줄 모른다. 죽어도 안으로 파고들다가 죽는다. 나는 그 광경을 '몰두(沒頭)'라고 부르려 한다.



2016. 04. 09.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성석제, '몰두' 중에서 -

- ① 소리는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른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섞어 사용해서
- ②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사건 대신 아주 엉뚱한 사건을 전개해서
- ③ 묘사하는 대상의 우스꽝스러운 생태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채 객관적으로 전달해서
- ④ 어떤 단어를 보통 쓰이는 의미 대신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짐짓 받아들여서

**정답**

'몰두(沒頭: 沒 빠질 몰/頭 머리 두)'는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하는 것이다. 그런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沒 빠질 몰/頭 머리 두'로서 진드기가 개의 연한 살에 피를 빨아 먹고 살면서 머리는 안으로 파고들고 있으므로 글자 그대로 파악한 것이다.

**19. 다음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진 않은가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다시 입을 벌렸다.  
“월요, 어델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체다. 생번이라 하여도 요보는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요 헌병인데 손하나 꿈쩍할 수 있나요. 그걸 보면 데라우치 상이 참 손아귀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야 많지요. 어델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몰 것이 딱 하나 있지요.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 하하하.”  
표독한 위인이 총동이는 수작이다.  
...(중략)…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리어 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험잡 부랑배의 술중(術中)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한번 그자의 상판대기를 치어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 염상섭, '만세전' 중에서 -

- ①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전달하고 있다.
- ②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른 인물을 관찰하며 평가하고 있다.
- ③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관찰자가 되어 등장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작품 속의 서술자가 작품 밖의 서술자와 교차하며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정답** ① 현대소설 - 서술자(시점)

'나'는 우리나라 노무자들을 경멸하는 일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라 없는 설움과 압박과 곤궁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나라 노무자에 대한 연민과 동정에 휩싸인다. 따라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른 인물을 관찰하며 평가하고 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 ①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 ③은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염상섭, '만세전'**

1. 핵심정리
  - 1) 갈래 : 여로형 소설, 사실주의 소설
  - 2) 배경 : 시간(1918년 겨울). 공간(동경과 서울)
  - 3)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주인공인 '나'는 당대 지식인의 전형과도 같은 인물로 작자는 주인공의 시선을 따라 식민지 조선의 다양한 현실을 포착하는 데 주력하면서 특히 조선인을 대하는 일본인의 자세와 당시의 조선의 현실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음)
  - 4) 주제 : 일제 강점 하에서 억압받는 우리 민족의 비참한 생활상. 지식인의 눈으로 바라본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과 소시민적인 지식인의 현실 인식
2. 작품의 이해
 

이 작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식민지 조선의 총체적 실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대적 사회상을 총체적으로 그려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실주의 작가 정신이 매우 투철하게 발휘되어 있다.

둘째는 주인공 이인화의 의식 구조를 통해 당시의 민족적 현실을 바라보는 지식인들의 나약하고 무기력한 의식 구조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암담한 현실을 이해하고 울분을 느끼지만, 중간자적 입장에서 사실을 전달할 뿐 현실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무기력한 당대 지식인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3. '무덤'의 상징적 의미
 

이 작품의 원제(原題)는 '묘지'이다. 원제와 의미가 상통하는 '무덤'은 당시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상징한다.

이런 암담하고 절망적인 현실에 대응하는 조선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연민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즉 삶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죽은 듯 보이는 일제 강점하의 노예적 삶과 그러한 현실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처참한 의식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무덤'인 것이다.

**20.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보기>의 대화에서 ㉠의 대답이 갖는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라이스(Grice)는 원활한 대화 진행을 위한 요건으로 네 가지의 '협력의 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주고받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양의 격률이다.  
둘째,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증거가 불충한 것은 말하지 말라는 질의 격률이다.  
셋째, 해당 대화 맥락과 관련되는 말을 하라는 관련성의 격률이다.  
넷째,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는 태도의 격률이다. 그러나 모종의 효과를 위해 이 네 가지의 격률을 위배하는 일은 일상 대화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연중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2016. 04. 09.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때에 따라서는 협력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 경우도 많다.

<보기>

대화(1)

㉠: 체중이 얼마나 되니?

㉡: 55kg인데 키에 비해 가벼운 편입니다.

대화(2)

㉠: 얼마 전 시민 운동회가 있었다며?

㉡: 응. 백 미터 달리기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사람을 봤어.

대화(3)

㉠: 너 몇 살이니?

㉡: 형이 열일곱 살이고, 저는 열다섯 살이지요.

대화(4)

㉠: 점심은 뭐 먹을래?

㉡: 생각해 보고 마음 내키는 대로요.

- ① 대화(1):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 ② 대화(2): 질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 ③ 대화(3): 양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 ④ 대화(4): 태도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정답** ① 대화의 격률-구체적 사례

- ①은 질문의 체중에 대해 답변한 것이므로 관련성의 격률은 지켜졌다. '키에 비해 가벼운 편'이라는 필요 없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양의 격률을 어긴 경우이다.
- ② '비행기보다 빠른 사람'은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질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 ③ '형이 열일곱 살'이라는 것은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양의 격률을 위배한 것이다.
- ④는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는 태도의 격률을 위배하였다.